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수해 피해를 입은 광산구 침단2동 한 주택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뒤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제공

## 광주시, '민·관·군' 힘 모아 수해현장 복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광산구 산월동, 서구 마북동 등을 찾아 침수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먼저 토사 피해를 입은 산월동 주민을 만나 "사람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며 위로하고 "토사 등 빠르게 집정리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방문한 서구 마북동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농민들의 피해 호소에 귀기울였다.

한 농민은 "농민들은 일년농사를 잘 지어야 포도시 먹고 산다. 앞으로 한 달 더

강기정 시장,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현장 점검·자원봉사자 격려 "신속 복구로 시민 일상 회복 총력...신속한 정부 지원 지속 건의" 31사단 군 장병·자원봉사자 등 500여명 비닐하우스·주택 집중정비

출하할 수 있었지만 이번 비 피해로 전부 망쳤다. 도시농업은 일반 농촌에 비해 세금은 많고 혜택은 적어 더 힘든 만큼 빠른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강 시장은 "조속한 피해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피해현황을 정리해 하루빨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복구 지원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행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7일부터 복구 신안동, 용강동 하신마을, 동곡동, 평촌마을 등 광주 일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자원봉사자, 군 장병 등은 집중호우 초기인 17일부터 20일까지는 약 630명이 휴일까지 반납한 채 복구에 힘을 보

탤다. 이들은 21일부터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이 투입돼 복구 신안과 일대를 비롯해 운암2동·용전동·용강동·문화동, 서구 서창동·마북동, 동구 학운동, 광산구 평동·신장동·임곡동·여룡동·하남동 등에 대한 복구 지원도 활발히 진행됐다. 주택 내부의 진흙 제거, 침수 폐기물 처리, 젖은 집기 정리, 쓰레기 수거 등 침수피해 상가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수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21일 오후6시 기준 광주 지역은 이재민 281세대 404명이 발생했으며, 도로침수 등 131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시설 피해 조사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응급복구가 필요한 346건 중 58.1%를 마쳤다. /박도일 기자

### 광주 정치권 "최악의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괴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의원은 22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시와 북구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하룻새 426mm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 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볼 여려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뒤 흠뻑 땀만 남은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서있던 피해주민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 지역에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426mm의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공공·사유시설

통틀어 1300여 건(피해액 최소 360억 원)에 이른다. 윤림동 석실고분과 오지호가, 빙월당 등 문화유산 3곳도 토사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도 281세대에 404명에 이른다.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수해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또 하천 단면 확보를 위한 일부 가옥 매입, 침수원인이 된 투명차수판의 즉각 개량 등도 함께 건의했다.

정 의원은 "재난은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하고,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며, 끝까지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전체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극한 호우는 도심을 집어삼켰고 시민들의 삶터는 폐허로 변해 도움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광주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집중호우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 도시는 언제든지 예고없이 쓰러질 수 있고, 그때마다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 전남도, 폭염 다시 시작... 온열질환 비상 대응 총력 피해 복구 현장·야외 활동시 물 자주 마시기 등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최근 집중호우 이후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도민과 복구작업 인력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물 자주 마시기, 한낮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남 지역은 기온이 급상승해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며, 고온다습한 대기 영향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5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남지역에는 평균 224mm, 많게는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 실의 작업 중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20일 현재 온열질환자는 총 114명(사망자 0)이다. 이중 열탈진이 69명(60.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열사병 26명(22.8%), 열경련 3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4명(73.7%), 여성이 30명(26.3%)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 자주 마시기(갈증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 섭취) ▲한낮 야외 활동 자제(오후 2시~5시 피하기) ▲시원한 옷차림과 휴식(매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어지러움, 근육경련 시 즉시 중단하고 119 신고 등 도민과 작업자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간을 축하합니다

2025 장성 방문의 해

내륙의 바다 장성호